

올리브영, 미국 첫 매장 연다... K-뷰티 세계 공략 본격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오픈
중소 등 약 400개 브랜드 구성
피부 진단 등 체험형 매장 운영



올리브영 미국 패서디나 매장 전경 투시도 이미지.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K뷰티' 등용문이자 글로벌 관광객의 K쇼핑 성지인 CJ 올리브영이 미국 본토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세계 최대 시장 정복에 도전한다. 그간 국내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현지 이커머스나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겪었던 한계를 뛰어넘고, 올리브영의 독보적인 '큐레이션' 역량을 집약한 대형 플랫폼을 미국 중심지에 통째로 이식한다.

21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 올리브영의 첫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문을 연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이 위치한 지역은 글로벌 고급 브랜드를 아우르고 있다. 해당 매장 바로 옆에는 애플스토어가 있고, 도보 1~2분 거리 내에 롤루레온, 알로 요가, 티파니엔코 등이 밀집해 있다. 이는 올리브영이 미국 상류층을 정조준해 최신 핵심 상권에 도전장을 던진 모습이다.

이번 매장은 연면적 803㎡(약 243평) 규

모에 단층으로 꾸며졌다. 국내 올리브영 타운 매장 평균 크기(약 258평) 수준이다. 우선 약 400개 브랜드의 50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전체 입점 브랜드의 80% 이상은 유망 K브랜드로 이뤄졌다.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실제로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특히 매장 입구에서는 K뷰티 브랜드 1곳을 집중 소개하는 팝업을 통해 중소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

매대는 기능, 성분, 제형, 피부 고민 등

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K뷰티 브랜드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최소 2주 단위로 재단장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브랜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체험 요소도 강화했다. 클렌징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피부나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올러 올리브영은 독자 구축한 반반 접객을 미국 매장에서도 구현한다. 기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탐색하듯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해 왔다. 다만 K뷰티가

낮선 소비자까지 응대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마쳤다.

이와 함께 미국 전용 온라인몰도 본격 운영한다. 올리브영 특유의 '옴니 채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미국 온라인몰 배송 기간은 올리브영 역직구 창구 '글로벌몰'보다 단축된다. 기존 5~7일에서 '3~5일'로 절반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배송 기준 역시 기존 60달러 이상에서 '35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춰 구매 장벽을 허물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3월 캘리포

니아 블루밍턴에 서부 통합 물류센터를 세웠다. 이 센터는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를 공급하는 물론 온라인몰 배송을 처리한다. 현재 1100평이며 향후 물동량에 따라 최대 5000평까지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실시간 재고와 오프라인 매장을 연동한 '매장 픽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체험한 고객이 온라인 재구매를 이어가도록 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린다.

올리브영은 미국 전역으로 오프라인 거점을 지속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 중남부, 뉴욕을 포함한 동부까지 순차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소비자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는 미국법인장은 "첫 매장인 패서디나점은 한국에서 쌓은 K뷰티 인사이트와 브랜드 인큐베이팅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전진기지"라며 "아직 K뷰티가 생소한 현지 소비자들도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진짜 K뷰티'를 발견하고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삼천당제약, 'S-PASS' 국제특허 체계 정비

안정적인 IP 운영 기반 확보
바이오 의약품 경구제 전환 목표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플랫폼 기술 'S-PASS'와 관련해 PCT 국제특허 출원인 변경 및 대만 특허 권리 구조 정비 절차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S-PASS 플랫폼의 글로벌 사업 확대와 지식재산(IP) 관리 체계 일원

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진행됐으며 관련 권리 구조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사업 추진 및 파트너십 논의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IP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PASS는 삼천당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로, 기존 주사제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경구제 전환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플랫폼 적용 범위 확대와 글로벌 사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권리 구조 정비는 글로벌 사업화 및 라이선스 전략과 연계된 IP 포트폴리오 체계화 과정의 일환"이라며 "향후 S-PASS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난 12일(현지 시간)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 행사에서 조아제약 박현규 부장(가운데 오른쪽)이 현지 바이어에게 조아제약을 소개하고 있다. /조아제약

조아제약, 중남미 바이오 파트너십 참가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 구체화

조아제약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것으로 조아제약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멕시코 9개사, 브라질 10개사 등 총 19개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이어갔다.

조아제약은 국가별 의약품 허가 및 등록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웠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각각 2~3곳의 유력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향후 현지 공급망 구축과 제품 등록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올러 최근 고테말라로 간장 활성화제 '헤파토시럽', 정맥·림프순환장애 치료제 '엘라스에이액' 등을 수출하는 등 조아제약은 중남미 지역을 지속 공략해 왔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파마 고형제 위탁생산 확대

오스템파마가 독자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형제 부분에서 위탁생산(CMO) 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산 품목을 다각화해 미래 성장 전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처방 비중이 높은 성분의 품목인 소화기관용제 '알마게이트500mg'와 '모사프리드시트르산 염수화물', 소염진통제 '복소프로펜나트 염수화물'과 '나프록센나트륨' 등이 대표적이다.

필수의약품 '해열진통제' 성분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 관련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지속 다각화할 계획이다.

오스템파마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데이터 완전성이란 최초 생성부터 사용, 폐기까지 의약품 제조 현장 전반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입증하는 지표다. 데이터가 얼마나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한지를 나타내며 모든 정보가 인위적인 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노화 유발물질 제거 기술 개발

전북대 이동원 교수팀과 공동연구
제약·화장품 융합한 항노화 기술

한국콜마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부 이동원 교수팀과 항산화 신소재 '토코페롤-옥살레이트-토코페롤(TOT)'을 공동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소재를 스마트 리포솜과 결합해 진피층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까지 구현했다.

이번에 개발한 'TOT'는 신약개발에서 쓰이는 암 세포를 표적하는 치료 원리와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한 사례다.

우선,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토코페롤(비타민 E) 분자 두 개를 특수 결합체

인 퍼옥살레이트로 연결했다. 피부 속 노화 원인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만나면 결합이 풀려 비타민 E가 방출된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활용했다. TOT를 미세한 스마트 리포솜으로 감싸 피부 진피층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진피층에서 TOT는 노화 원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그 결과, 한국콜마는 과산화수소가 있는 환경에 TOT를 도입하자 30분 만에 농도가 40% 이상 감소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올러 TOT는 일반 비타민 E의 10분의 1 양으로도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항노화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국제 분석숙련도평가 '만족' 획득

8년 연속 분석 역량 입증

광동제약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 A)이 주관하는 식품분석숙련도평가(FAPAS)에서 8년 연속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획득해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FAPAS는 각국의 정부기관·대학·연구소 등이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기 위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는 참가기관의 분석값과 기준값 간 차이를 수치화한 표준점수(Z-score)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점수가 0에 근접할수록 높은 정밀도를 의미하며, ±2 이내일 경우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는다.

광동제약은 2018년부터 매년 FAPAS



광동제약 R&D연구소 모습.

평가에 참여해 미생물, 영양성분, 잔류물질,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 판정을 유지해 왔다. 2025년도 평가에서는 비타민 B1·B2·B6, 나이아신, 마그네슘, 구리 등 영양성분 분석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보존료 등 대부분 항목에서 0에 가까운 표준점수를 기록하며 우수한 분석 정확도와 정밀성을 재확인했다.

/이세경 기자